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유세(遊說)의 시대

박 재 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새해 들어서자마자 국회의원 예비 출마자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와 전화가 빗발친다. 그러고 보니 올해 가장 큰 이슈는 3개월 남짓 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다. 총선을 준비 중인 정당 대표들과 당직자들은 벌써 전국을 오가며 민심의 주도권을 잡으려 분주하고, 총선에 나갈 예비 후보들은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며 자기 이름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려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4월 10일 이전까지는 온통 선거 이야기로 뒤덮일 기세다. 바야흐로 선거 정국이라는 큰 장이 대한민국에 서고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유권자의 표다. 유권자를 설득하여 마음을 얻는 과정을 유세(遊說)라고 한다. 유(遊)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라는 뜻이고, 세(說)는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말하여 '설득한다'라는 뜻이다. 유세의 기원은 강태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폭군 주(紂)의 신하였던 강태공은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제후들에게 돌아다니며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유세하였다. 결국 문왕(文王)에게 유세하여 문왕의 신하가 되었고, 은(殷)나라를 멸하고 주나라 건국의 주역이 되어 제(齊)나라 제후로 봉해졌다. 유세의 성공으로 부와 지위를 얻은 것이다.

최초의 유세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지금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대상이다. 공자나 맹자를 비롯하여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은 모두 귀족을 상대로 한 유세객이었다. 그들은 귀족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세하였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이 원하는 청사진을 제시하여야만 유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유세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자는 유세 도중 봉변을 당해 제자들과 고난을 겪기도 하였다.

유세의 결과는 둘 중 하나다. 성공과 당선, 또는 실패와 낙선이라는 결과다. 성공과 당선은 높은 지위와 부를 보장해주고, 실패와 낙선은 가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당선된 사람과 낙선한 사람으로 나뉜다. 처음에는 똑같은 유세객이었지만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인다. 당선되자마자 초심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성공에 취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도 있고, 낙선과 동시에 폐인이 되어 하늘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맹자는 유세에서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당시 유세객이었던 송구천(宋句踐)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성공해도 효효하고, 실패해도 효효하시게.' '효효'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득(自得)의 모습이다. 당선되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효효하게 갈 것이며, 낙선되면 마음의 흔들림 없이 나를 수양하며 효효하게 살라는 당부였다. '선비는 실패해도 원칙을 버리지 않기에 당당한 자신을 얻고(窮不失義士得己焉, 궁불실의사득기언), 성공해도 자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백성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達不離道民不失望, 달불리도민불실망).' 실망(失望)이란 당선되기 전에 그토록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던 사람이 당선되면 돌변하여 사람들의 희망(望)을 잃게(失) 한다는 뜻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찬밥과 나물을 뜯어 먹으며 살수도 있고, 비단옷을 입고 음악을 들으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찬밥에 나물국을 먹든, 비단옷에 화려한 음악을 듣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후에 당선과 낙선을 경험할 후보자들에게 한마디 미리 전하고 싶다. 낙선되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수양하며 효효하게 살 것이고, 당선되면 부디 초심을 잃지 않아 국민을 실망(失望)시키는 일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실망하는 국민을 보는 일은 공직자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종교칼럼

쾌락과 천박

황 성 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어릴 적, 초등학교가 바로 집 앞에 있어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고, 공 하나면 친구들과 함께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저녁 식사 시간도 잊은 채 공놀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부모님은 "때가 되면 그만하고 집에 와야지!"라고 야단을 치셨다. 조금 분별할 줄 알게 된 나이가 되면 누가 야단을 쳐 주지 않아도 정신 차려야 할 때와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23년을 보내고, 새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모두가 매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정말 좋겠다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 바람이 성취된다는 게 쉽지 않다. 우리의 삶이 과하게 풍요롭지 않더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거나 멈추지 못해서 천박해지지는 않았으면 한다.

쾌락(快樂)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감정 상태 중 재미와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 밝게 웃고 기쁘게 지내며 재미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유쾌한 사람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긍정적이며 좋은 의미인 이 '쾌락'이라는 단어는 때론 부정적 의미가 강하기도 하고 '쾌락'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금기하기도 한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 '쾌락'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고, 반복된 삶의 습관처럼 되면 끊어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자기 삶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에만 빠진 나머지 어디에도 무관심하면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질지 궁금하다.

쾌락의 추구는 우리에게 심적인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더 클 것이다. 우리의 감각은 더 나은 것을 바라는데, 문제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감각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감각은 만족을 위해 더한 것을 원하도록 속일 것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진한 것을 찾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래서 탐욕으로 이어지고 절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우리 감각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정신차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삶의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급기야 타인의 삶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못하도록 중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절대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뉴스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쾌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자주 소식을 전하시면서 자주 언급하시는 것이 '소비의 열병과 쾌락에 대한 집착'이라는 주제다. 교황은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 마음을 마비시키는 소비의 열병'과 '쾌락에 대한 집착'으로 사랑에 대해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젊음의 희망을 짓밟히지 말자고 권고하셨다.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 청년들의 모임인 2023년 포루투갈 세계청년대회에서 말씀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워지도록 이끌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도록 이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다. 그런데 하느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을 막는 장애물, 사람과 사람을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 사람의 천부 인권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생명의 중요성을 서로 지키자는 거룩한 말씀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뉴스를 통해 가끔 느껴지는 악취와 같은 소비의 탐욕과 쾌락에 대한 무서운 집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멈춤의 때를 분별했으면 한다. 우리가 끝없는 쾌락의 추구로 인해 더 이상 천박해지지 않았으면 한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마태오 복음 7장 6절)

기 고

허균과 매창

황 옥 주
수필가

스승이신 시인 임효순 교수님을 찾아뵙던 날 매창전집을 선물 받았다. 800쪽이 넘는다. 당일로 밤샘하며 읽었다. 그 후로도 틈틈이 펼쳐보며 매창공원을 꼭 가보고 싶었다. 조선의 삼대 명기로 송도 황진이, 성천의 김부용, 부안의 매창을 들지만 시의 수준이나 양에 있어서 매창이 단연 으뜸이다.

그녀는 선조 때의 현리인 이탕종의 딸이다. 계유년에 태어났다하여 계생이나 계랑 등 이름도 많다. 그 중 널리 알려진 것은 그의 자호인 매창이다.

처음, 이 공원에는 매창의 시비만 있을 줄 알았다. 막상 둘러보니 그녀의 시는 광장에 있는 '이화우'를 필두로 8편뿐이고 연인이었던 유희경과 허균의 시를 중심으로 이병기 시 등 모두 13기가 세워져있다.

여기서 유독 마음과 눈길을 끈 것은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며'란 허균의 시다. 천상의 복숭아를 훔친 죄로 하늘에서 쫓겨난 항아를 빗대어 애달픈 정을 그렸다. 원문이나 번역자 이름은 없고 작자인 허균의 이름만 있다.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펴는 듯하고/ 맑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게 하네/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더니/ 불사약을 훔쳐서 인간 무리를 두고 떠났네/ 부용꽃 수놓은 휘장엔 등불이 어둡기만 하고/ 비취색 치마엔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듬해 작은 복사꽃 필 때쯤이면/ 그 누가 설도의 무덤 지나려나"

'애계랑'은 한문학자 유채근 교수의 '신화가 된 천재들'과 정민 교수의 '미쳐야 미친다'에도 나와 있다.

매창전집에는 허균과 매창의 이야기기 많다. 문정배의 '소설 이매창'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파자(破字·한자의 자획을 풀어 나눔)로 인사하는 장면이 아주 흥미롭다. 허균은 매창의 이름을 듣고,

"길기도 하구만. 그러지 말고 설중유화(雪中有花) 벽공유심(碧空有心)이라 하게나." 설중유화는 매(梅)를 벽공유심은 창(窓)을 뜻하는 말이다.

"임이 그렇게 하시라면 첩은 하명대로 하겠나이다."

"매창이라, 결국 그리움과 기다림일세 그려."

"어찌 그리 풀이를 하시는지요?"

"매는 그리움의 대상이며, 창은 기다림의 공간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임께서 그리 하라시면 첩은 그렇게 하겠나이다."

천재 문장가에 꿈 많고 낭만적인 32세의 선비가 28세의 이름난 기생을 만났으니 춘산화접이라. 1601년 7월 23일, 그날은 공교롭게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모양이다. 두 사람은 시와 술과 거문고와 노래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날이 저물도록 즐겼다.

밤이 깊어 매창은 조카로 하여금 허균을 모시게 했다. 그녀의 첫사랑 유희경이 허균의 가까운 친구며 매창의 정인이었던 김제 군수 이귀도 허균의 친구이자 선배였다. 한 쪽은 유곽의 기녀요 한 쪽은 권세가의 풍류남아다. 그런데도 육체적 욕정을 억제하고 순수한 플라토닉 사랑으로 10여년이나 지속했다 한다.

허균이 공주 목사직에서 파직되고 부안으로 내려와 우반동 정사암에 은거한 것도 매창에 대한 연정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해 겨울 승문원 판교 벼슬을 제수받아 서울로 올라 온 허균이 1610년 여름, 매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가 바로 이 공원에 초청된 '애계랑'이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설도(薛濤)의 등장이다. 설도는 당나라 시대에 명성을 날린 시인 기녀다. 격조 높고 고상하고 우아한 문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이다. 허균은 그런 설도보다 매창의 재능을 더 높이 샀다는 의미 같다.

설도가 우리 귀에 낯설지 않음은 그녀의 시 '춘망사'를 시인 김억이 번역하여 가곡 '동심초'의 가사로 썼기 때문일 터다. 학생시절 이 노래에 빠져보지 않은 자 없었고 지금도 노인들까지 기억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社 說

갈등과 증오의 정치, 'DJ 정신'으로 극복해야

내일(6일)이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탄신 100주년이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DJ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전남도는 5일 '돌아보는 100년, 나아가는 100년'이란 주제로 기념식을 갖고 DJ 정신계승 퍼포먼스와 함께 DJ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담은 다큐 영화 '길 위에 김대중'을 무료로 상영한다. 탄생일인 6일에는 남도소리울림터에서 국악 공연 '인동초의 봄'이 첫 선을 보인다. 5일부터 12일까지는 일상 사진과 옥중 서신, 노벨평화상 메달 등 소장품 기획 전시도 마련돼 있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11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고 DJ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 등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연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이 행사를 마련한 취지는 '김대중 정신'을 되찾아 후세에 계승하자는 데 있다. 민주·인권·평화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어가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신은 특히 갈등과 증오로 인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권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국내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 양 당을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에 매몰돼 왔다. 극좌 극우 유튜버들이 생산하는 가짜 뉴스가 양 극단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급기야 새해 벽두부터 제1 야당 대표가 테러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DJ는 생전에 "다양성을 모르는 자가 정치를 하면 망한다. 우리는 지금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정권을 주고받는 정치 게임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는 상대를 죽이고 자기가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DJ 탄생 100주년이 정치권에 주는 교훈은 '콜로세움의 정치'를 청산하고 '아고라의 정치'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유치원 휴·폐원 속출, 고강도 저출산 대책 절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 광주지역의 출생률 급감으로 올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곳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신입생수가 1만 명대로 감소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중앙초, 월곡초, 치평초, 광주동운초, 조봉초 병설유치원 등 5곳을 폐원할 계획이다. 이들 유치원 5곳은 2024학년도 유아모집 결과 공립유치원 학급 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3년 이상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올해부터 광주북초·광주동초·송학초·도산초·운리초·한울초·광주효덕초 병설유치원 7곳이 1년간 휴원한다. 1학급 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부득이 휴원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지역 초등학생 수 역시 해마다 격감하고 있다. 광주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수는 2007년 2만 4291명에서 2023년 1만 258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비슷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사실 유치원 휴원과 폐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예견된 일이다. 세계 최저인 0.78명의 출산율로 신생아의 수가 급감하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들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학령인구·입대자 감소에서부터 임용교사 급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 폐원 등 사회 서비스 제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광주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채용 인원이 2년 연속 6명에 그치는 등 수년째 한자릿 수에 머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출산장려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크다.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꺼리지만 정부가 내놓는 방안은 육아휴직 확대 등 '인센티브' 수준에 가깝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다가올 인구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독도 주의보

일본이 근현대 시기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벌인 전쟁들을 살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성격을 지녔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집요함과 치밀함이 무서울 정도이다.

독도가 예로부터 한국 땅이라는 사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수많은 역사적 사료와 고지도를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러·일 전쟁 당시인 1905년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도를 강제로 병합했으며, 패망한 뒤에도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최신 일본사'라는 교과서에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이후 역사적 왜곡을 본격화했다. 곧바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지금까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역사 왜곡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양 젊은 세대에게 주입하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2014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5년 중학교, 2016년 고교 교과서 등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을 실어 교육하고 있다.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일본의 왜곡 활동은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었다. 최근 이시카와현 일대 강진 발생 당시, 일본 기상청은 지진해일 경보·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주의보 지역에 넣어 발표했다.

불행히도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치밀하고 집요한 전략이 한국에서 효과를 보는듯하다. 국방부가 만든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는, 결국 일본의 주장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던 것도 확인됐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가 국토를 지켜야 할 한국 국방부에 통했다는 사실에 분노할 따름이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